



남가주새누리교회는 '다시, 하늘이 열리리라!'를 주제로 8월 한달간 중보기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일(주일) 박성근 목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지만, 어떤 권력자나 부자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무덤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 어떤 나라가 아무리 국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무덤이 된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성령께서 떠나가면 무덤이 된다. 유럽의 교회를 보면 스펀지가 설교했던 큰 예배당도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관광지로 변했다.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덤으로 변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4면] ©기독일보

美 공립학교서 성경 수업 프로그램 '급성장'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새 학기 동안 약 3만 명의 어린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기반을 둔 기독교 단체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LifeWise Academy)는 최근 11개 주에서 300개 이상의 학교가 새 학기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하이오 외에도, 이 프로그램이 제공될 다른 주로는 아칸소,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가 포함된다.

라이프와이즈 창립자이자 CEO인 조엘 펜톤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133개 공립학교에서 이뤄졌지만, 올해에는 31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펜톤은 이러한 증가의 일부 원인으로 "어떤 지역사회든지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10단계 시작 절차"를 꼽았다. 그는 "이 절차는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LifeWise Academy)가 제공하는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

지역사회가 LifeWise.org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커뮤니티 관심 목록' 서명 운동을 통해 관심을 키우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립 학교 교육에 종교를 도입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지만, 라이프와이즈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저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부분의 학

교와 학부모들은 이 아이디어에 매우 열려 있다. 전적으로 선택적인 프로그램이라 문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수업 외 프로그램(Release-time programs)은 학부모와 학교의 승인 하에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 시간 중에 학교를 떠나 종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개념은 1952년 미국 대법원의 조라크 대 클라우슨(Zorach v. Clauson) 판결에서 나온 것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사비로 충당되며 학부모의 승인을 받는 한, 공립학교 학생들은 수업일 동안 학교 밖에서 종교 수업에 참석할 수 있다.

다른 수업 외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라이프와이즈는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널리 채택되는 재현 가능한 모델임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19년에 단 두 곳의 오하이오주 공립학교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전국의 수백 개의 다른 학교에

서 시행될 예정이다.

펜톤은 "수십 년 동안, 신앙 기반 단체들은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앙의 가치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학생들은 이동 또는 일정 문제로 인해 종종 기회를 놓쳤다. 학교 시간 중에 운영함으로써, 학교 문화에 더 잘 통합되고, 이전에 소외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진보적 유대인 옹호 단체인 '반 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은 "공립학교 자금이 사용되지 않고, 학교 밖에서 학교 관리자나 교사가 강압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 출석을 장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지지했다.

ADL은 "프로그램의 어떤 요소라도 공립학교가 종교를 지원하는 인상을 주거나, 실제로 지원이 제공된다면 해당 프로그램은 국교금지조항 위반으로 법원에 의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로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리스

뱅크리스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국제이비사 USA 이사장
 (원)남가주 교외임의의 고문 변호사
 (원)제미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원)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인간의 죄성 인식되고, 성결의 삶 계속 이어져야”



신선목 교수가 17일 오후 4시 웰드미션대학교 스마트 강의실에서 열린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 <임동선 목사의 삶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기독교일보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가 8월 17일(목) 오후 4시 웰드미션대학교 스마트 강의실 (5층)에서 개최되었다. 웰드미션의 부총장인 신선목 교수는 <임동선 목사의 삶과 영성>을 주제로 그가 남긴 영적, 학문적 유산과 그 의미에 대해 전했다.

신선목 교수는 “임동선 목사는 성결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인간의 죄성을 인식하고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했다. 예수의 은혜를 힘입은 자라는 것을 늘 삶으로 나타내셨다”라며 “그는 중생한 이후에 성령에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임 목사의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의 영성이었다.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봉 목사를 모델로 삼고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선교를 지향하는 목회를 하고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전개시켰다”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그의 영성은 후반부에 선교와 복음 전도의 열매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임 목사의 또 하나의 영성은 근면 성실의 영성이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벌고,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면서 “또 하나는 나라 사랑의 영성으로 한국에서 군복을 오랫동안 하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이 투철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그의 영성은 전도 활동을 시작으로 문화를 가로질러 세계 선교를 활동적으로 임하는 영성이다. 그는 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에 중심을 뒀다. 그의 비전은 늘 세계를 향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문화를 가로질러 사역했다. 그의 선교 지향적 영성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도전하도록 격려했으며, 그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와 사모. ©기독교일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길 소망”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가 팔순을 맞아 친지들과 교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팔순 감사예배를 20일 오후 4시 커뮤니티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에서 드렸다.

김영찬 목사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고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목표이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목사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나갈 때 정체성을 찾았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이 이뤄지는 곳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되어 감사하다”라면서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를 원한다. 앞으로 이 소

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데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1부 예배는 이원석 목사(OC 목사회장)의 기도, 박대근 목사(전 OC목사회장)의 설교, 심상은 목사(OC교회 회장)와 주창국 목사(효사랑선교회 전 이사장) 축하 메시지, 민승기 목사(갈보리새생명교회) 축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부 축하의 시간에서는 감사의 인사와 가족 소개, 생신 축하 노래, 지인들의 찬양과 난타팀의 퍼포먼스가 있었다. 토마스 맹 기자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어쩌나 어찌

난리났네 난리 났어
화마가 덮쳐 올라왔네
괜찮은가 피해는 없나
나도 피난가야하나
안절부절 발 동동 구르네

휴, 다행이다

소방서에서 나와 삼시간에 불길 잡고

꺼 버리니 안심일세

꺼진 불도 언제나 조심

모든 거 조심히 해야 할걸세

-글: 사진: 장춘근-

“온라인 플랫폼, 기독교 공동체 소통의 공간 역할해야”

8월 17일(목)에 열린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 최윤정 교수는 “WMU 온라인 교육과 영성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팬데믹 이전에는 세미나를 개최하면 로컬로 제약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로컬 뿐 아니라 미국 각 주에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교육의 강점을 이야기했다. 그는 전통적 수업방식에서 역전형 수업(flipped learning, 학생들이 집에서 미리 올라오는 사전 과제를 통한 학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실제 활동, 토론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과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결합한 수업 형태)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새로운 교육 모델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미네르바 스쿨. 캠퍼스 없이 기숙사만 있으며 기숙사는 7개 도시에 거점

을 두고 있다. 학생이 배운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응용하게 하며 창의력이 바탕이 된 새로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다.”

최 교수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육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편리하고 장점이 많지만 뿌리가 되는 신앙, 영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도전이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앙을 유지할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돌보며 공동체가 가진 비전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역할을 하며 온라인 플랫폼이 공동체의 열린 장,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최윤정 교수는 임동선 목사의 영성이, ‘개인의 구원과 공로적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회 개혁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존 웨

슬리의 영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웰드미션 역시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를 위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는 사역자로 자리매김해 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온라인 교육에 영성 형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웰드미션의 비공식, 잠재적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육학으로 보면, 학습에서, 커리큘럼을 통해 배우는 것은 20%이고 숨겨진 커리큘럼으로 배우는 것이 80%이다. 비공식 커리큘럼은 정식으로 채택된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학교 지정된 활동 등을 통해 교육목표가 성취되도록 하는 것으로 온라인 수련회, 세미나, 단기선교, 공동체를 위한 액티비티 등이 포함된다.” 그는 “교육은 영적 형성이며 진리 공동체의 회복이다”라는 파커 팔머의 말을 인용하며, 이것이 웰드미션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또한 웰드미션대학교는 9월 24일(수) 오후 7시에 임동선 목사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주디 한 기자

Solomon University 가을 음악회

Scholarship Fundraising Music Concert



Wi Young Oh Tenor, SangKeun Chang Tenor, Won Hyeon Choi Tenor, Clara Kim Shin Artpop Soprano, Young Joo Lee Soprano, YooJin Yang Soprano



Kyungmi Yoon Piano, Esther Baek, Ph.D. President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33th Annual The Solomon University Scholarship Fundraising Music Concert를 개최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20회에 걸쳐 매해 열렸던 모금 음악회를 Covid-19으로 인해 3년동안 하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다시금 여는 가을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신학대학교(원)에서는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배출해 왔으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서 이름도 빛도 없이 각 지역과 오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소명(Calling)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천한 신학생들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 음악회입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풍성한 가을밤을 수놓을 출연진 성악가들의 오페라 아리아의 감동적인 선율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 책자광고와 Music Ticket 구매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미주평안교회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후원 및 광고 문의 : Tel: (323) 708-9191 / (213) 381-7755
- PAY TO THE ORDER: Solomon University | SIMC Tax Exmotion (세금공제)

- 티켓구입문의 Ticket \$30
Solomon University 323-708-9191
조선일보 213-459-6800 크리스천 비전 323-934-7500
기독교일보 213-739-0403 기독교서적 센터 323-733-8850

“전국을 돌며 수치스러운 과거를 말하는 이유는 ...”

원하트미니스트리가 함께하는 우미셀 목사 찬양집회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개념조차 없었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집에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이 있었고 교회 강당보다 더 큰 백야드가 있었다. 그런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나. 고 2 때 이전과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살던 집은 팔리고, 갈 곳이 없어 노숙할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작은 투베드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때가 대학진학을 앞둔 수험생 때였다. 피아노 레슨을 받으며 줄리어드 음대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대줄 수 없었다.

“나만 빼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학 생활의 로망을 즐기는 듯 보였다. 나보다 더 실력이 없던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며 좌절감과 상실감이 깊어졌다. 친구들은 보스턴으로, 다른 도시로 가서 대학 생활을 즐기는데 나는 아직도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했다.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작은 한인 커뮤니티 안에 우리 집 소문이 다 퍼진 것이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대해 축덕이고, 우아한 사모님이던 엄마가 마트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지만, 그 당시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는지 10년 넘게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우미셀 목사를 포함해 다섯 가족이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데, 꿈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꿈 속에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눈물을 흘리다 잠을 깨곤 했다.

우미셀 목사는, “10대의 마지막 20대 초 중반을 우울감에 시달리며 허비해 버린 것 같다”고 회상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으러 온 여인에, 가난한 현실을 조롱하는 듯한 친구들의 시선을 벗어나고 싶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다.

지난 8월 19일(토) 오후 6시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원하트미니스트(One Heart Ministry, 문화사역단체, 대표=피터박 목사) 주최로 우미셀 목사의 찬양집회가 열렸다. 우미셀 목사는 LA에

서 태어나 일바인에서 성장한 한인 2세로, 현재는 분당 만나교회(담임 김병삼 목사)를 섬기며, 많은 청년집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오직 주로 인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예수님 때문에’, ‘높이 계신 주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등을 파워풀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간증을 나누었다.

자존감 짓밟던 음성 대신, 주님의 따스한 음성, “네 삶에 놀라운 일들 준비했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며 여자라는 이유로 천시를 받아왔다. 해가 뜨거운 대낮에 편도 2킬로가 넘는 거리를 혼자 물을 길으러 다닌 여인이다. 인생의 패배자. 문란하다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여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시는 것인가? 4장은 3장과 짝을 이뤄 읽어야 한다.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고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다. 한 명은 유대의 최고 의회의 회원이었던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천대받은, 다른 종류의 인간이다.”

우 목사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최고의 인간과 최하의 인간, 지식인이 무식한 자, 의인과 음행한 자”로 두 인물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 역시 그 은혜가 절대로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자였으며, 가톨릭 모태신앙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말했다.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상실감을 수험생 때 맛닥뜨리고, 집안 형편 때문에 진학을 꿈꿨던 학교를 포기하고 아무 주립대학이나 들어가 시간을 허비했다. ‘헛헛



지난 8월 19일(토) 오후 6시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원하트미니스트(문화사역단체, 대표 피터박 목사) 주최로 우미셀 목사(분당 만나교회)의 찬양집회가 열렸다.

한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친구 따라서 교회에 “놀러”갔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 친구 따라서 교회에 놀러 갔다가 목사까지 되었다”고 말했다. 처음 간 교회가 남가주사랑의 교회였다. 메시지를 듣는데,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낮 12시에 고생을 해서 겨우 우물가에 왔는데, 우물가에 낫선 남자가 서 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서 있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같다. ‘아 오늘 망했다, 오늘 잘못 걸렸다.’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 같다. 언제나 그랬듯 멸시와 조롱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것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 같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하고 친절한 음성이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왔다. ‘너희 가정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야.’ 제 자존감을 짓밟았던 음성 대신에 ‘네 있는 모습 그대로와 줄래. 이미 너희 삶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계획해 놓았어.’ 어디서든 들어본 적 없

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타투에 대해, “손목을 보면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수치이다. 타투를 보며,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우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전후의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시선을 피하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벽찬 소식을 널리 널리 전하고 다닌다. 저는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앞에 서기 어려워하는 성향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성향을 뛰어넘는다”고 삶의 변화를 나눴다.

그는 “수치스러운 저의 과거를, 대한민국 전국을 돌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고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집회를 주최한 원하트미니스트리는 남가주를 중심으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하며, 건강한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목회자 가정의 심, 위로, 자기 발견, 샬렘



제3차 GIFT 샬렘 세미나가 19일부터 21일까지 옐렌지 카운티에서 개최됐다. ©GIFT 상담치유연구원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샬렘(Salem, 히브리어로 ‘완전하다’라는 뜻)’이 옐렌지 카운티에서 개최됐다.

사역으로 분주한 목회자들의 일정에 맞춰, 토요일 오전과 오후, 주일 오후 그리고 월요일 오전과 오후로 이어지는 다소 빠박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목회자 자신과 사모들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신을 돌보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제공했다.

“샬렘”은 전담한 박사와 임상 심리학 박사 전 리더야 박사 부부의 헌신과 함께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졌다. 남가주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전 박사 부부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샬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으로 세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제 1차와 제 2차 행사를 통해 섬김을 받은 목회자와 사모들이 자원봉사자로 섬김을 나눠 더욱 아름다웠다.

박세헌 목사를 위시한 봉사자들은 헌신적으로 목회자와 사모들의 영적 위로를 도왔다. 이번 샬렘에는 6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 그리고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목회자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꼭 막힌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돌파구를 찾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샬렘에는 풍성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다. 마음이 담긴 섬김과 배려로 참석한 목회자와 사모는 큰 위로를 받았고 고백과 나눔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선 기자

크렌셔장로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된 크렌셔장로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한 일꾼을 세우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권사 임직: 지순실 / 서리집사 임명: 홍경아

- **일 사** : 2023년 8월 27일 (주일) 오전 10:30
- **장 소** : 1060 Crenshaw Bl, LA, CA 90019
- **문 의** : 한현종 담임목사 (213-407-1600)

시무장로 : 김제임스 장로 (805-663-9272)
서진호 장로 (213-700-5931)
조영철 장로 (213-332-9511)

한현종 목사

크렌셔장로교회
CRENSHAW PRESBYTERIAN CHURCH

“죄 때문에 시작된 무덤,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감정적 무덤, 탐욕의 무덤, 중독의 무덤에서 벗어나야

[1면 사진 '남가주새누리교회 중보기도축제'에 이어서]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가 20일 오후 1시 30분에 중보기도축제 세번째 시간을 가졌다.

새누리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주 8월이면 중보기도 축제(주일 오후 1시 30분)를 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교회 한 부서의 사역으로 중보기도학교로 모였는데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중보기도 축제로 변경됐다.

메시지를 전한 박성근 목사는 이날 기도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은 유일하게 무덤을 깨트린 주인공이다. 주께서 다시 사서

서 우리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손을 대시면 무덤이 열린다”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과 무덤의 자리와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지 무덤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 무덤은 내가 만든 무덤이다. 내가 범죄함으로 무덤에 갇히게 된 것이다. 나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핑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 목사는 “첫째로 감정적인 무덤이 있다.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 우리를 결박하고,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 두 번째로 탐욕의 무덤이 있다. 탐욕적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무덤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면서, “중독의 무덤이 있다. 마약, 마리화나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박한다. 사실 마리화나가 미국에 보편화 되어있다. 전 대통령 가정의 딸도 마리화나하는 모

습이 마스크에 나왔는데, 대통령의 딸이 한다면 일반 사람은 말할 것 도 없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성근 목사는 “사회적인 병폐로 동성애 문제, 성전환 수술과 같은 문제로 사회가 무덤에 빠져서 신음하는 현상이 생각보다 많다. 하원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수많은 전문가들, 의사 이든 성전환자 수술을 한 자이든 한가지 일치하는 이야기는 아이에 대한 성전환 수술은 100%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면서 “콜이라는 아이가 13세 때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겼는데, 하고 나니 아니라는 것이었다. 육신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일평생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면서 “임파선암 말기에 있던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육신에 암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됐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하면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을 받으면 악한 군대가 떠나가게 되어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면 개인이든 교회이든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능력을 붙들기를 원한다. 기도를 하지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마음을 문을 열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축복을 받자”고 했다. 토마스 멩 기자

전 세대가 함께 복음통일 비전 공유

‘제4차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선교 컨퍼런스’가 미국 달라스베다니장로교회(담임 장헛살 목사)에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마지막 날 오창희 목사(흰돌교회)가 한반도 복음통일에 앞서 교회가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 “한국교회, 신사참배 깊이 회개해야”

오 목사는 “신사참배는 80년도 넘는 일인데 왜 이걸 다시 들춰내는가 ‘이미 끝난 일 아닌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늘날 신사참배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해야 하는가.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죄에 대해 진정한 회개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사참배의 죄로 인해 남북분단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 목사는 “신사참배 하면 그냥 강압에 못이겨 신사에 가서 억지로 절했다는 정도로 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는 그보다 훨씬 더한 배도”라며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그는 “1938년 9월 9일은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던 날”이라며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10일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해서 통과시켰다”고 했다.

오 목사는 “일본 경찰들의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됐다. 그런 후 총회장 성명이 나왔다.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신사참배가 과연 국민의례인가. 결코 아니”라고 했다.

특히 그는 “장로교가 총회에서 신사참배

를 가결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 당시 장로교 교세는 다른 기독교 종파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다. 그야말로 몸통이 넘어진 것”이라고 했다.

오 목사는 비록 당시에 우리가 직접 신사참배를 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의 역사적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죄가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 민족이 지은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했던 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라며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의 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전 한국교회가 낱자를 잡아 일제히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주문했다. 실제 이번 컨퍼런스 주최 측은 내달 3일부터 9일까지를 ‘신사참배 대속 기도 일’로 정했다.

오 목사는 “모든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신사참배의 죄를 가슴 깊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싸매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주셔서 남북의 진정한 복음통일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애즈베리 부흥운동

한편, 이날 김하진 목사가 출초 미국 센터 키주 월모어의 애즈베리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직접 목격하며 느꼈던 것을 전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현재 이 대학교 학생이라고 한다.

애즈베리대학교는 인구 6천여 명의 작은 도시인 월모어에 있는 기독교 사립대학이다. 이 대학교에선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몇 차례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다.

올해 부흥운동은 지난 2월 8일 수요일 채플에서 시작됐다. 외부 강사였던 잭 미어크립스(Jack Meerkreebs)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제4차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선교 컨퍼런스’가 달라스 베다니장로교회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기독교일보

없다”며 그 사랑을 체험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후 일부의 학생들은 채플이 끝난 뒤에도 현장에 남아 계속 기도와 찬양을 드렸고, 이것이 마침내 전 세계 교회가 주목했던 ‘애즈베리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것.

김 목사는 “부흥운동 기간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애즈베리대학교를 방문했다”고 했다.

그는 애즈베리 부흥운동의 영적 배경으로 ‘기도’를 꼽았다. 특히 지난 1970년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이후 50여년 간 부흥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그 토대가 되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애즈베리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끊임없었던 기도도 기폭제가 되었다고 김 목사는 강조했다.

아울러 애즈베리 부흥운동의 특징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 △삼위 하

나님께 집중된 예배 △급진적인 겸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 안에서 세대, 인종, 전통을 아우르는 연합 △오프라인 예배의 중요성 재확인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부흥운동은 애즈베리대학교 내의 많은 영적 변화들을 비롯해 미국 내 수백 개의 대학교들과 수많은 교회들에 영향을 주었으며, 전 세계의 교회들과, 특히 한국교회에도 큰 영적 영향을 끼쳤다고 김 목사는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4차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선교 컨퍼런스’를 이끈 미주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의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전 세대가 함께 복음통일의 비전을 발견한 귀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 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조이스 리, M.D.

진료과목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예방 접종

조이스 리, M.D. 메디컬 세미나 참가자 모집!

떡과 선물 증정!



선착순 20명
예약제 모집

주제 경동맥

일시 8/30 (Wed) 10:00AM

장소 센터메디컬 클리닉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신청 무료 전화 신청
방법 (714) 519-3024

“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가정의학과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라구나힐스교회 광복 78주년 맞아 장학금 수여식

장학생 16명 선발, 8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 포함

남편 사별 후 홀로 두 자녀 키웠던 학생, 풍토병으로 고군분투하는 학생

라구나힐스교회(담임 립학춘 목사)가 조국 광복 78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 제11회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 13일 개최했다.

이날 립학춘牧사는 '하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하여 시니어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꿈을 꾸는 드리머(Dreamers)로, 자라나는 다음세대에게는 하늘의 비전을 보고 당당히 걸어가는 비저너리(Visionaries)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라구나힐스교회 장학위원회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의 11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27,800달러 장학금 수여했다. 2023년에는 장학생 10명을 선발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많은 지원자로 인하여 6명을 증원하여 16명을 선발했고, 이 가운데 8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가 포함됐다.

장학생 대표로 소감을 전한 정재은 학생은

"어머니가 처한 응급의 상황에 응급실에서 부모님이 겪은 언어의 장벽, 20시간을 넘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간절한 상황을 경험하며, 메디컬 스텝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민 1세대와 세계의 소외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가운데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한 남편과 사별하여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11년을 걸여온 늦깎이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에 대한 감사의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모님이 선교사로 사역하는 가운데 선교지에서 걸린 풍토병으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의 소식도 태국에서부터 동영상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발표를 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장학금 외에 격려금을 해당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감동적인 일도 일어났다.

이날 장학금은 교회가 선교지로 집중하고



라구나힐스교회 장학금 수여식. ©라구나힐스교회

있는 몽골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전달되었다. 몽골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신은혜 학생과 몽골신학교에 재학중인 신학생 3명, 그리고 제3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Dodam Foster Foundation(최경애 재단이사장)과 연계하여 몽골 청소년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1997년 라구나우즈빌리지의 중심지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올해로 26주년을 맞는 라구나힐스교회는 자체 건물은 없지만 선교와 장학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그 일을 확장해 가고 있다. 건물을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립학춘 목사의 말은 오늘 교회의 존재감에 대한 여운을 남긴다.

김민선 기자

“기쁜우리교회 통해 입학의 길 열려”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장학금 수여식. ©기쁜우리교회

25명의 장학생에게 총 5만 7천 불 장학금 수여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장학위원회가 2023-2024년도 장학생을 선발해 5만 7천 불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20일(주일), 기쁜우리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25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이중 일반장학금 1만 4천 불 목회자 선교사 자녀 장학금이 2만 2천 불,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각각 1만 불, 히스패닉 커뮤니티 학생들을 위해 6천 불, 멕시코 신학교에 5천 불이 각각 전달됐다.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지정헌금과 작성헌금을 해준 성도와 장학헌금을 해준 온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학위원장 서지철 장로는 “많은 학생들

이 장학금을 신청했으나 더 많이 주지 못해 안타깝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을 돕는 기쁜 장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터키 선교사 자녀인 탁은지 학생은 “바이올라에 대학에 입학하기 전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입학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기쁜 우리교회 장학금을 통해서 입학의 길이 열렸다”면서 “우리 같은 신학생들도 와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말씀을 전한 김경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받은 창조의 빛과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기쁜우리교회는 창립 첫 해부터 지금까지 장학사역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시니어 센터 제 9대 이사장 체제 출범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하 시니어센터)가 지난 16일 제33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선출, 향후 행사 일정, 다울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니어센터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는 8월 16일(수) 강남회관에서 제 33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선출 및 행사일정, 다울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영신 이사장과 함께 제9대 이사회를 이끌 임원으로 수석 부이사장에 박성수, 부이사장에 브래드리, 글로리아김, 이현옥, 감사에 크리스티추, 크리스틴정 이사

가 선출됐다. 하기환(1,2대) 이영송(3,6대) 박형만(4,5대) 정문섭(7,8대) 전 이사장과 신디백 이사가 자리에 함께 해 개최를 축하했다.

추석잔치는 9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제9대 이사장 취임식과 다울정 오픈행사도 이날 같이 진행된다.

시니어 센터 제공

찾아가는 건강 세미나, 알찬 정보로 호응

'하루 한 자리 수 환자'를 목표로 고품질 진료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풀러튼 센터메디컬 클리닉 주치의 조이스 리 박사(가정의학과)가 찾아가는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리 박사는 17일(목) 풀러튼의 아메리지 빌라에서 '경동맥 질환'을 주제로 액티비티를 가득 채운 50명 시니어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 강연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이어졌다.

김민선 기자

365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CGN LIVE와 함께!

무료 시청



스마트폰에 CGN LIVE 앱을 설치하시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추천 프로그램 방송시간 안내(LA시간)

- 새벽기도회 오전 2시 / 오전 5시
- 주일예배 오전 7시 ~ 오후 10시 30분
- 하용조목사의 말씀 오전 3시 50분 / 오전 9시 / 오후 6시 50분
- 설교말씀 월요일 ~ 금요일 - 오후 10시 30분
월요일 ~ 토요일 - 오전 7시 10분 / 오전 7시 50분 / 오후 2시 / 오후 2시 40분 / 오후 4시 10분 / 오후 5시 30분 / 오후 10시 30분 / 오후 12시 40분
- 성경읽기 월요일 ~ 토요일 - 새벽 3시 10분 /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오후 11시 40분
- QT(말씀묵상) 새벽 2시 50분 / 오전 6시 / 오후 9시 30분
- 건강체조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50분
- 조혜련의 오십소 화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밤 12시 / 금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어메이징 그레이스) 수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더불어 사는 삶) 수요일 오전 6시 40분 / 목요일 오전 12시 10분 / 금요일 00:00 / 토요일 10시 50분



CGN LIVE 앱 설치방법

구글 플레이 앱 또는 앱 스토어에서

CGN LIVE 를 검색 하세요



무료 다운로드

삼성 (Android)



아이폰 (iOS)



설치문의 : 323-932-1200

TV로 CGN LIVE 시청하기



남가주 디지털공중파 채널 44.9(디지털안테나 설치) CGN 시청용 전용수신기 설치 (HD 고화질로 시청가능)



문의 : 323-932-1200 | cgntvusa@gmail.com

성경필사

후원자 모 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 : 16~17)

성경필사 후원자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노트북

2등



아이패드

3등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진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예수그리스도에게 소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받은 사람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삼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과 사랑받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심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ia.org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w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w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는 명령, 어떻게 볼 것인가?



8월 21일 한국개혁주의설교 연구원 설립 31주년 기념 세미나가 세곡교회에서 진행됐다. ©연구원

이스라엘 정복 전쟁, 현대적 관점에 거슬러나,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큰 목표 주목해야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원장 강문진 목사) 설립 31주년 기념세미나가 21일 오후 서울 세곡동 세곡교회(담임 박의서 목사)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설교하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일정을 개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니온신학교와 하버드대학교 등에서 수학한 The Third Millenium Ministry 대표 리처드 프랫 박사(Richard Pratt)를 주강사로 3일간 총 5차례 강의를 진행하며, 국내 학자들의 4차례 특강도 마련됐다.

리처드 프랫 박사는 “여호수아서도 다 른 성경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다.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의 언약적 관점에 크게 의존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여섯 권(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중 첫 번째 책으로, 하나님 통치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모세 죽음 직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집중하고, 사사기에 보고된 사건의 무대를 설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랫 박사는 “성경은 각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는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후기 세대가 주님과 그의 왕국을 섬길 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리한 정복 이야기(수 1:1-12:24)’를 주제로 한 첫 강의에서 그는 “여호수아 첫 번째 주요 부분은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정복을 승리한 점에 초점을 맞춘다”며 “이는 우리가 전 세계에 걸친 그의 통치 확장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한다”고 전했다.

리처드 프랫 박사는 “이스라엘의 난폭한 정복은 종종 현대의 도덕적 신념에 거슬린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행한 일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을 ‘여호와께 바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6:17). 그분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심히 악한 일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 의한 부패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려 하셨다”고 밝혔다.

프랫 박사는 “가나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퍼뜨리는 일을 성공하게 될(창 12:1-3) 그날에 훨씬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며 “이 왕국이 주님에게서 돌아섰을 때, 주님은 그들을 고국에서 수 세기 동안 추방하셨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포로기 후 다윗의 의로운 왕의 아들이 왕좌를 차지해 이스라엘 왕국을 땅끝까지 퍼뜨릴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사 9:6-7; 렘 23:5)”고 전했다.

‘신약적 문맥’에 대해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악령과 패역한 인간을 용납하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서 서서 싸우시겠다는 것을 의미했다(1:9).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에서 여호와와의 임재하심을 의존해야 했다”며 “이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는 여호수아의 부르심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어떻게 전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배우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후 5:6, 빌 1:20, 엡 6:10, 딤후 1:12)”고 이야기했다.

그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소집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이상적 자화상을 통해, 저자는 성경에서 수차례 반복한 하나의 주제 즉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연합을 소개한다. 여호수아서 저자는 종종 모든 열두 지파가 전쟁에 간여함을 강조한다(3:1, 7, 17, 4:4, 8-9, 14, 20, 5:8)”며 “그들은 다같이 요단을 건넜고(4:11-14), 여리고에서 함께 싸웠다. 아 이성이서 연합하지 못한 것이 패배로 이어졌다(7:1-14). 여호수아의 초기 언약 갱신은 모든 지파가 다 포함됐다(8:33)”고 했다.

이대웅 기자

“탈북 여성 5명, 무사히 제3국으로 구출”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증진센터(소장 이한별)가 “지난 4월부터 7월 탈북 여성 5명을 무사히 제3국까지 구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증진센터는 탈북 여성들의 구출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1분 32초)을 21일 유튜브 ‘탈북여성TV이한별’에 게시했다. 구출된 탈북 여성들은 30~40대이며, 탈북 시기는 2000년 초반에서 2016년 사이다. 탈북 요인은 가족 투병이나 아사 등으로 부모를 잃고 북한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탈북 후 중국에서 생활이 어려워 동북3성 중국 노총각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등 제대로 된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태로 체류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인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폭력으로 구타를 당했고, 신분증도 없이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다. 더구나 코로나 19 팬데믹 전부터 공안으로부터 신고하고 살 것을 강요당해, 반드시 체류자 등록을 해야 했다고 한다.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신분증을 요구해 불안을 경험했고, 식당에서 일을 하더라도 붙잡혀 같이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이들 중 한 탈북 여성은 코로나19 기간 몸이 아파도 신분증 검사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어 매우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중국인 남편과 살면서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고, 신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자녀들과 희망 없이 계속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됐다. 더구나 자신마저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당하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 있어, 제 3국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하고 북한인권증진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대웅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 어린이 성전환 수술 금지법 통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위치한 주의회 건물. ©위키피디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로이 쿠퍼 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 시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은 어떤 약물이나 수술로도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 현실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는 16일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에 관한 법안'으로 알려진 하원법안 574호(HB 574)와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으로 알려진 하원법안 808호(HB 808)에 대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HB 808과 관련하여 두 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 외에는 투표 결과가 정당별 노선을 따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두 법안은 쿠퍼 주지사가 올해 초에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 중 두 개로, 이후 거부권이 무효화되어 법안이 통과되었다. HB 808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교차 성호르몬, 사춘기 차단제 또는 정상적인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즉시 시행되며, 8월 1일 이전에 이러한 개입을 시작한 미성년자는 의사에 의해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의 동의를 받고 계속할 수 있다.

테리 실링 APP 회장은 성명에서 "트랜스젠더 산업이 계속해서 기반을 잃어가고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North Carolina, ACLU)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의 정책 및 옹호 담당자인 리즈 바버는 이 법안이 "이미 여러 장벽에 직면해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성명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을 선택할 자격이 있으며,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 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쿠퍼 주지사는 HB 808과 HB 574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화당 의원들이 "주정부를 이용하여 부모와 의사의 권리와 책임을 침해하고, 취약한 아이들을 해치며, 주의 명예와 경체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HB 808의 통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및 약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21개 주에 합류했다. 김유진 기자

미 법원 "동성 결혼식 반대한 기독교 농부, 시장내 차단 금지"



스티브 테네스 씨가 미국 미시간 주의 살랏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 앞에서 있다. ©자유수호연맹(ADF)

미국 법원이 기독교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동성 결혼식을 거부한 경우에도 시장 참여를 금지 당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폴 L. 말로니는 21일 미시간주의 이스트 랜스 시가 농장 소유주인 스티브 테네스가 자신의 땅에서 동성 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마다 열리는 농산물 시장에서 컨트리밀 팜스(Country Mill Farms, CMF)를 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말로니 판사는 "시가 CMF에 대한 판매업자 거부 결정이 강력한 정부 이해를 충족시키고자, 제한적으로 조정된 것임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말로니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별금지조례 시행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한, 다른 사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재량적인 면제를 제공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면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

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기독교 비영리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이 CMF와 테네스의 법률 대리를 맡아 진행했다. 2021년 7월부터 이 사건을 대리한 ADF 고문 변호사 케이트 앤더슨은 22일 성명을 통해 판결을 환영했다.

2016년 8월, 테네스는 CMF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의 사업체가 종교적 이유로 동성 결혼식을 개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그러자 이스트 랜스 시의 관계자들은 테네스의 입장을 인지한 후, 2017년 1월에 이스트 랜스 농민 시장 참여를 위한 CMF의 신청을 거부했다.

테네스와 CMF는 2017년 5월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시 공무원들이 농민에 대한 종교적 차별을 시행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당국은 CMF가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시 조례를 위반했다며 신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유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오명천 담임목사.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최혁 담임목사.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은혜와평강교회 Eunhye & Pyeonggang Church. 광덕근 담임목사.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충현선교교회 Chunghyun Mission Church. 국용권 담임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남가주기쁨의교회 South Coast Joy Church. 이창영 담임목사.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sc.com

가디나선교교회 Gardena Mission Church. 이호민 담임목사.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대홍장로교회 Daehong Presbyterian Church. 김정훈 담임목사.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둘로스교회 Duluth Church.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은혜로교회 Eunhyero Church. 김경환 담임목사.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이광영 담임목사.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토렌스 조은교회 Torrance Jo Eun Church. 김우준 담임목사.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jcc.org

토렌스제일장로교회 Torrance Jeil Presbyterian Church.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세리토스선교교회 Seritto Mission Church.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CRPC 모레노밸리연합교회/LA구국재단. LA 벨가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 Church.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남가주동신교회 Namgaju Dongshin Church.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님의빛교회 Your Light Church.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늘푸른선교교회 New Green Mission Church.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다우니제일교회 Downey Jeil Church.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Laguna Hills United Methodist Church.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베델교회 Bethel Church.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얼바인온누리교회 El Alamo Onnur Church.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org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Orange County Korean Church. 평안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c.com

은혜한인교회 Eunhyehannin Church. 행복한 교회 섬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함께 걷는교회 Hanmaekkeun Church.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강태광의 기독교 인문학 강의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침투와 교회의 혼란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을 전후하여 일제강점기 중에 조선에 새로운 사조인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은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기독교운동을 등에 업고...

1926년 감리교연회록은 공산주의로 인한 기성교회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 준다.

그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교회에서도 "조선의 젊은이들이 밀려오는 무신론과 불세비키즘과 회의주의적인 서적들을 다치는 대로...

1932년 '코리아 미션필드'에서 사회주의 영향력과 퇴폐적 문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1932년 '코리아 미션필드'에서 사회주의 영향력과 퇴폐적 문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인문학으로 훈련된 위대한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루돌프 브렌들레(Ludolf Brandle) 박사는 요한 크리소스톰의 생애를 다루는 책을 썼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었던 것도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불행한 갈등이었다.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상징이었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크리소스톰은 A.D. 367년 여름에 리바니우스 문하에서 인문학 수업을 마치고 368년 사순절 기간에 세례교육을 받고...

요한 크리소스톰의 스승 디오도로루스는 당대 안디옥 학파 대표자다.

을 받은 요한 크리소스톰은 건전한 교회 개혁가로 성장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젊은이였다.

하지만 요한 크리소스톰은 금욕과 수행의 삶을 지속해서 추구했다.

그는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의 유언(복음서로 추정됨)을 암송했다.

당시는 수도와 경건 훈련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시기에 요한은 멜레티우스 주교에 의해 부제로 서품을 받는

다. 크리소스톰의 전기 작가 루돌프 브렌들레는 안디옥 교회에 7명의 부제가 있었다고 전한다.

아울러 요한 크리소스톰은 <동정(童貞)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과격한 금욕적 가징생활 원칙을 제시한다.

AD 386년 사순절 전에 요한 크리소스톰은 사제로 서품을 받았고 설교자로 임명받았다.

크리소스톰은 어머니 안투사의 기도와 신실함, 리바니우스의 인문학, 테오도루스의 성경과 수행교육 그리고 멜레티우스와 플라비아누스의 목회의 영향을 받아...

요한은 탁월한 언변, 인문학 훈련 그리고 건전한 신앙 훈련을 바탕으로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기관 ATS정회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Grid of 60 church profiles, each containing a pastor's name, photo, church name, and service times. Churches include Acts Global Church, Angel's Church,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His Presbyterian Church, LA사랑의 동산교회, LA하나교회, Metanoia Church of Southbay, New Start Community Church, Only One Church, The Well Church,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In Christ Christian Church, 남가주늘사랑교회, 남가주예수사랑교회, 남가주은혜선교교회, 놀익장로교회, 늘새론교회, 더섬기는교회, 랜초한인교회, 로고스라이프교회, 리뉴얼새힘교회, 말씀위의교회, 방주교회, 버몬한인교회, 베이커스필드아름다운교회, 브림장로교회, 생명과사랑의교회, 생명의길교회, 선민교회, 섬김의교회,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성암교회, 예심교회, 원웨이침례교회, 은혜가샘솟는교회, 은혜샘교회, 주님의숲교회, 주백성교회, 초대교회, 카마리오열방교회,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커넥션교회,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크로스교회, 하늘기쁨의교회,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Global United Church, 굿프렌즈교회

강준민 칼럼

깨어짐이 풍성함을 낳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깨어짐이 풍성함을 낳습니다.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깨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풍성함은 원하지만 깨어짐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하).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입니다.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역설의 진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외로우셨습니다. 거절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히 5:7).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깨어짐을 통해 주어집니다. 깨어짐은 상처입니다. 깨어짐은 아픔입니다. 깨어짐은 슬픔입니다. 깨어짐 때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깨어짐은 상실입니다. 깨어짐은 이별입니다. 깨어짐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어짐 없이는 풍성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짐의 소중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해 진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진다는 것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곧 절제의 능력이 성숙의 능력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

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려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을 용납합니다. 품을 줄 압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과 교제합니다. 곧 그런 과정을 통해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깨어짐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깨어짐 없이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죽는다는 것은 씨앗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의 생명이 껍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눈에 있습니다. 씨앗의 껍질이 벗겨질 씨앗 속에 감추인 생명이 흘러나와 썩어 낱니다. 꽃을 피웁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떨어지기를 싫어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짐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던 우리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집니다. 그때 피와 물이 함께 쏟아지면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어린 생명은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끊습니다. 어머니의 자궁과 이별하면서 어린 아이는 성장합니다. 이별이 없이는 어린 아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 안에는 수많은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수박 씨앗 속에 수많은 수박이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어린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렸습니다. 드림과 나눔이 풍성함을 낳았습니다. 어린 소년은 드림 줄 알았고, 나눌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 어를 붙잡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고기를 부수어 나눠 주셨습니다. 부서짐과 나눔을 통해 풍성한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드림과 부서짐이 풍성함을 낳았습니다. 깨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은 상처입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상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깨어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깨어진 틈 사이로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상처의 흔적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깨어지는 슬픔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팀 켈러는 "주님의 기쁨은 슬픔 안에서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크게 상처 받은 사람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그들 안에서 최상의 것을 찾아내십니다. 마음이 부서진 사람을 통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깨어짐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을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단테의 신곡 part 2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단테의 신곡은 단테가 벨라기우스라는 의인을 만나, 그의 안내로 지옥, 연옥, 천국의 순서로 탐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죄와 죄에 합당한 형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옥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입니다. 제1지옥, 제2지옥, 제3지옥, 등등,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받는 장소도 다 다르고, 형벌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나, 사람마다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영혼의 정화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징벌, 즉

수련법도 다 다릅니다. 연옥에는 이 땅에 살 때, 지나치게 음식을 탐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혼을 정화하는 수련법은 각종 과일이 풍성하게 달려 있는 나무 밑에서 열매를 바라보면서도, 결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징벌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먹고 싶는데, 먹지 못하는 인내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식탐의 징벌을 받는 자들은 모두 갈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허구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징벌을 당하고 수련한다고 죄의 습관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습관을 이기게 하는 것은 회개로 말미암는 예수 보혈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밖에는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중간지대에서 수련을 통해 죄를 이긴다는 개념은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죄에 대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중 한가지는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 내는 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앞

서 소개해드린 연옥에서 다루어지는 두가지 죄, 식탐의 죄와 게으름의 죄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먹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먹는 것이 죄다 싶을 정도로 타락한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시대에 황제와 귀족들은 먹을 것이 워낙 풍부해서, 먹고 토하고, 다시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맛집 탐방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잡은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튜브에는 먹방 동영상이 가득합니다. 성경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식탐이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식탐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보다 중요하고 우선시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사업도, 성공도, 운동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얼마든지 죄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는 분명히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물질, 재능, 은사, 시간 등)을 활용하지 않고, 아무런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유전된 죄성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교만, 이기주의, 불신,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습 이면에 어떤 죄악된 생각과 어떤 악한 동기와 불순한 목적이 숨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삶을 돌아보면, 회개해야 할 은밀한 죄가 상당히 많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 합리화하는 일이 습관화되면, 우리의 믿음과 양심은 타락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도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더욱 진지하게 다루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제 죄에 대해서 신경 쓸 것 없으니 걱정 말라"가 아니라, "이제 죄를 다루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능력이 생겼으니, 죄와 싸워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은밀하고도 교묘한 죄까지 다루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지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차분 오반떡
슬랑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끝이 좋아짐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하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대개 시작이 쉽거나 좋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술이나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시작이 좋지만 깨고 나면 후회하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악인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히 배임을 당하여 끝이 안 좋은 사람이고 의인은 견고하여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끝이 잘못되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지만, 끝을 잘 마무리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끝이 중요합니다.

1977년도를 한국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알만한 권투시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환 선수의 WBA 세계 타이틀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파나마에서 열린 경기에서 카라스키아 선수에게 2회에 4번이나 다운을 당하는, 권투로서는 거의 끝난 경기인데도 저돌적인 인파이팅으로 오히려 3회 KO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경기는 당시 모든 한국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스포츠 100년사에 수많은 승리와 감동의 경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경기가 탑 10에 뽑힌 까닭은 멋진 역전극으로 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난 뒤에는 “~~할걸, ~~할걸” 하며 변명의 말이 많습니다. 시꺼먼 매연이 많이 나오는 자동차는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완전히 다 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될 땀 나무에서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타는 완전연소는 힘과 에너지도 강하고 깨끗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사자와 곰과도 싸우는 완전연소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있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위해 음식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키는데,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형들이 집에 있었지만 들에 있는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미 다윗은 아버지의 양도 치고 사울왕에게도 왕래하며 수금을 타는 두 가지의 일을 힘들게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만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내가 왜 가야 되요? 형들을 보내세요.’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삼상17:20) 이

렇게 최선을 다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믿음이 생겨 승리하게 되었고, 존 동네 목동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 원수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 “다음에”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연소하는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다음을 위해 내 힘을 조금 남겨 두라고 계속하여 유혹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서 뭔가 찌꺼기가 남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새로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을 위해 내 힘을 남겨두어야 할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끝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자유와 평화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리처드 로어(Richard Rohr 1943-)가 지난 2011년에 쓴 책 Following Upward(위쪽으로 떨어지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임을 이해한다. 아래로 떨어진, 그것도 잘 떨어진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위를 오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이 말을 떠올리며 작곡가 주세피 베르디(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 1813 - 1901)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근대 오페라의 거목’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오페라 시장에서 그가 남긴 26개의 오페라 그리고 레퀴엠이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곡가로 입문한 초기 그의 삶에서 가장 깊고 험난한 시련의 계곡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1839, 1840년, 연속해서 그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페라(오베르토 Oberto, 하루만의 임금님- Un Giorno di Regno)를 만들어 각각 무대에 올려 초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싸늘하였고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무참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깊은 나락에 빠지면서 자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는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36년 결혼하여 그 이듬해에 낳은 아들과 아내를 차례로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연속은 베르디가 한때 작곡마저 단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깊은 실의 속에 두 해를 보낸 베르디는 1842년 당시 라 스칼라극장의 지배인으로 있던 바르톨로메 메렐리 (Bartolomeo Merelli 1794-1879)의 집요한 설득으로 오페라 대본가 레라(Temistocle Solera, 1815-1878)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부코 왕(성경 속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내용을 토대로 쓴 대본을 건네받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은 심정으로 오페라 대본을 접하게 된 베르디는 이것을 통해 의욕을 되찾아 작곡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하며 재기에 의욕의 불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디가 이 오페라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민족주의 작곡가로 유명한 그는 대본의 내용이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란 확신이었습니 다. 당시의 북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애국 운동으로 온통 술렁거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민족의식과 자유의지의 열망이 베르디의 오페라 정신을 지배하던 중 “나부코”의 대본을 읽고 완전히 매혹당했습니다

둘째, 오페라 작곡가로서 그는 두 개의 작

품을 완전히 실패한 이후 재기를 다져야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나부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작곡에 손을 대고 이 작품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결국 베르디는 그의 세 번째 오페라 작품이 된 나부코(Nabucco)를 써서 1842년 3월 9일 감격스러운 초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수난, 그로 인한 고통과 환난 속에 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민족의식과 신앙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강인한 결속력은 베르디 스스로 감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스케일과 장대한 무대 규모를 마음껏 표현하면서 유대왕국의 멸망에 따른 나부코의 행적을 쫓는 그의 음악 정신은 결국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통해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거대한 불을 지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이 작품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려 67회나 연속 상연될 정도로 오페라 팬들을 열광시켰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베르디는 50여 년에 걸쳐 만들어진 23개의 모든 오페라 작품은 하나도 빠짐 없이 인기를 독차지하며 오늘날까지 주 레퍼토리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베르디가 근대 오페라의 거장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오페라 중 3막에서 부르는 ‘노예들의 합창(Va Pensiero)은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오페라 합창곡입니다. 내용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와 억압과 노역에 시달리

는 히브리노예들이 유프라테스강변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조국을 향해 부르는 노래를 소재로 하였습니다. 베르디는 이 합창곡으로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염원하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곡의 내용, 그리고 당시 이탈리아의 상황은 일제 강점기와 너무 유사한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중한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에서 오늘날까지도 해마다 광복절을 전후해서 “자유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의역된 가사를 가지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C 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은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놀랄 만큼 많은 이들이 그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라고 책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베르디를, 루이스가 이야기한 “고통은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합니다”라는 말을 이룬, 그리고 리처드 로어가 이야기 한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아래로 잘 떨어졌기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 대표적인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라고 자꾸 귓전에 메아리로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음성으로 들어보이지 않으렵니까? 그리고 누군가 혹시 아래로 떨어졌습니까?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놀라 기회를 주신 축복의 서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



하루 5분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오희용내과

다이아몬드바 무료체험

오희용내과 내

20627 GOLDEN SPRINGS DR. SUITE #2 - D & E DIAMOND BAR, CA 91789
Phone : 909-480-0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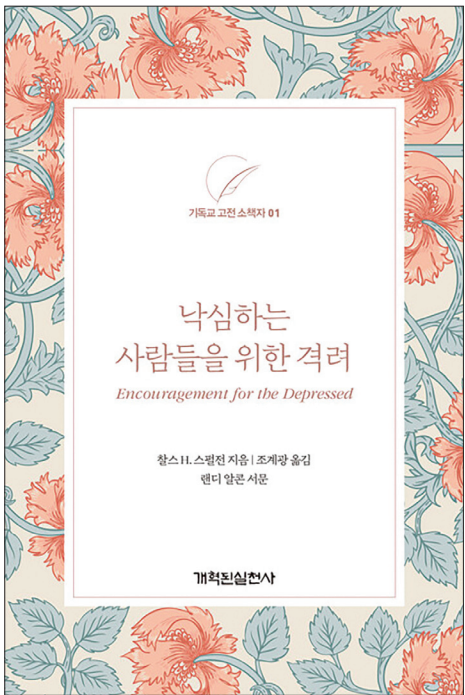
Z-UP 전자동거꾸리

LOLC Inc. | Tel. (213)703-0240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For the Spirit & Body |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개혁하는 옛 길의 힘

천하의 스피전도 끊임없이 '낙심'과 싸워야 했다



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책으로 지식을 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 출판사의 특별한 배려와 애정이 더욱 값진 결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된다.

찰스 스피전은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는 런던 침례교 목사이고, 토머스 찰머스는 스코틀랜드 설교자 및 신학자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과 에딘버러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쳤다. 두 사람의 생애는 각각의 소책자에서 짧게 요약되어 있다.

스피전은 "진지한 개혁과 신학과 청중을 향한 열정적인 복음 메시지를 하나로 결합한 설교(26쪽)"를 특징으로 말하고, 찰머스는 "지질학, 천문학, 기독교 변증학, 빈민구제, 경제학, 정통 칼빈주의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설립에 크게 기여(11쪽)"한 것을 언급했다.

두 권의 책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도전과 격려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먼저 스피전의 책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한계와 연합함을 절감하며 사역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역의 자리에서 언제라도 물러나게 할 만한 외부의 압박과 내면의 우울감과 싸웠던 스피전은 언제 낙심이 찾아오는지, 어떻게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지 개인의 경험과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책을 통하여 설명한다. "주님이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도 권위에 있어 우월한 만큼 외롭다(83쪽)".

또 스피전은 주님을 위한 일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더디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말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 위로한다. "작은 일의 날에는 우리가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될 특별한 탁월함이 간직되어 있다(56쪽)".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 많은 적든, 교회의 인도자는 낙심할 일이 많다.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넘어지기 쉽다. 실망스러운 사역 결과 때문에 우울하다.

하지만 누구나 동경할 만한 스피전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 싸웠다. 작은 일을 멸시하지 않고 감사하고 충성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만족하며 위로를 얻었다. 우리도 같은 격려가 필요하다.

토머스 찰머스의 <세상 애정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 역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자가 거듭나기 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옛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그것의 부질없음을 상기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간절히 이루기 원하는 마음, 그



찰스 스피전

설교는 단순히 죄를 드러내고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인지 강조하며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고, 돌아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이야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설교는 성도가 더 매력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애정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하지 마라'고만 계속 말하지 말고 '주를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선포함으로.

스피전과 찰머스의 글은 책으로 남겨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필요와 가치가 있을 만큼 훌륭하다. 짧은 분량이지만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선배들을 통해 물려받을 수 있다.

프란시스 웨퍼, B. B. 워필드, 마르틴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J. C. 라일, J. I. 페커 등의 소책자도 국내에 소개되기를 기대하면서, 두 권의 '기독교 고전 소책자'가 스피전의 말처럼 무시할 수 없는 작은 기쁨과 도전과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찰머스의 글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애정이 강렬할수록 옛것에 대한 집착과 욕구가 사라지고 새것에 대한 열정이 솟아난다.

특별히 찰머스는 이 분명한 원칙이 사람이 변화하는 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추구하는 바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피력한다.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우리가 환난 중에든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3,4



We also glory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ROMANS 5:3,4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
찰스 스피전 | 조계광 역
개혁된실천사 | 72쪽

이 책은 여러 질병과 삶의 고난, 우울증과 싸웠던 스피전이 전하는 격려의 메시지이다.

스피전은 성경을 사용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진리에 기반한 격려로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격려이다.

개혁된실천사에서 두 권의 '기독교 고전 소책자'를 냈다. 미국 기독교 출판사인 크로스웨이(Crossway)에서 낸 소책자 시리즈(Short Classics)를 번역 출간한 것인데, 그 첫 작품으로 찰스 H. 스피전의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 두 번째 작품으로 토머스 찰머스의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이 이번에 국내에 소개됐다.

스피전의 책은 랜디 알콘이 서문을 작성했고, 찰머스의 책은 존 파이퍼가 서문을 썼다. 시리즈 서문에 따르면 이 책들은 첫째, 역사적 글들을 좋은 품질의 책으로 보존하기 위해, 둘째, 두꺼운 책에 별로 흥미도 없고 읽지도 않을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 중심적인 은혜와 진리를 기민하게 제공하기 위해 출판됐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훌륭한 저작이 세대를 거듭하여 읽히고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참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D.P.' 시즌2 (1)

넷플릭스 'D.P.' 시즌2 내용과 군대 인권 현실

**군 내 부조리 구조적 개혁 가능성
군 존재 이유, 부정적 감정과 결부
인권 개선 및 정예화 여건 장애물
부조리와 불투명, 개선 없이 반복**

◆군의 방어기제: 외부의 감시와 개입, 변혁 요구를 극렬히 거부하는 한국군

'D.P.' 시즌2는 지난 시즌1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총기난사 탈영병 김루리(문상훈 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혹행위 등과 관련된 군대 내 부조리 문제를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시즌1 서사가 주로 D.P.조의 군 외부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즌2의 서사는 군 내부에서 가혹행위나 탈영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과 태도에 배태되어 있는 구조적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시즌 2는 D.P.조가 군무이탈자를 연행하는 말단 임무만 보여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정 운영방식에 초점을 맞춰 서사를 전달한다. 이에 따라 시즌 2의 서사는 시즌 1보다 훨씬 확장된 스케일을 보여준다.

하지만 확대된 서사에 걸맞은 개연성과 치밀함을 갖추지는 못했다. 특히 힘없는 말단 D.P.조 인원들이 군 내부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설정은 과도하게 비현실적이며, 이로 인해 드라마의 작품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D.P.' 시즌2 서사의 개연성과 현실성 부족 문제와는 별개로, 이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즌1이 내무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군대 가혹행위와 부조리 문제를 주로 거론하고 있다면, 시즌2는 군대 내부 부조리를 옹호,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는 군 수뇌부의 편협적 방어기제를 들춰내 비판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군대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군대는 보유하고 있는 무력과 군기에 의해 유지되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 상당한 수준의 방어기제를 내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돼 있다는 미군 역시 일정 부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미국은 원래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민병대에서 군대가 출발한 만큼, 전통적으로 권력과 권위에 대한 집착이 비교적 약하다.

게다가 미군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정통 정치체제로 떠받든다는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확고한 문민통제 원칙을 지키고 있기에, 그나마 외부의 비판이나 변혁 요구에 대한 방어기제가 덜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과 서구의 극소수 정치 선진국들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군대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주제, 군국

주의, 독재정, 과두정, 파시즘 정권을 지탱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 애초 엄정한 군기에 의한 상명하복을 최고의 미덕으로 아는 집단이 권위와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치체제와 결탁하기까지 했던 만큼, 그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성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군대에서는 징집병이든 자원병이든 말단 병사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다. 그리고 그 전통은 약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비록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받아들인 정치체제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군대 내부에 이런 선진적인 인권의식이 스며들어 자리잡는 일은 지극히 더디게 일어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대 역시 민간과 군 내부 인권의식 차이의 괴리 때문에 상당한 내용을 겪어 왔다.

◆군의 존재의미: 군의 '실질적' 존재 의미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

현대 한국군의 관습과 병영문화 중 태반은 식민지 치하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혹자는 한국군의 기원을 독립운동을 수행했던 광복군에서 찾지만, 실제로 광복군을 이끌었던 세력들과 지도자들 대다수는 해방 이후 민족자주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북한 측에 가세해 인민군 창군을 주도했다.

특히 북한과 가까운 만주나 중국 북부 지역에서 모택동 치하 팔로군에 종군했던 장교와 병사들 대부분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최정예 주력력으로 활약했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주도로 한국군 내에 미군의 운영방식과 병영문화가 일부 섞이기는 했지만,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 주요 지휘관 대부분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군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이었다. 당연히 이들이 군대를 운용하는 습성이나 병영을 꾸려나가는 방식 모두 일본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역시 만주 소재 일본 육사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와 1970년대 내내 집권하면서 그대로 이어졌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장성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서 1980년대까지도 거의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군이 제대로 인권에 관한 의식을 유념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다. 그 전까지 한국군 내부에는 사실상 조선 시대 유교적 권위주의의 전통, 그리고 일제 시절 군국주의 전통까지 존재해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이런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전통은 군 본연의 보수적 성향과 맞물려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군 문화가 상명하복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애초 군대의 존재 이유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거듭 인정되고 있다.



한국군의 병영생활 속 부조리와 폭력, 가혹행위를 주제로 삼은 넷플릭스 TV 시리즈, 'D.P.' 시즌2. © 넷플릭스

예수께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보고 크게 칭찬하신 바 있다(마 8:5-13). 즉 성경은 정당한 권위와 명령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며, 이 땅의 군대 역시 이러한 질서를 모방해 그 기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상명하복 질서가 군대 내 권력자들의 부당한 이익과 부조리, 악의를 위해 악용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의 철두철미한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군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화되지 못한 군대들은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개입, 변혁 요구에 대해 거의 발작에 가까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겉으로는 군의 전문성을 지키고 내부 기강을 유지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부조리한 계급질서에 의해 이익을 얻거나 감정적 만족을 얻는 이들이 군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극렬히 거부하는 것이다.

군의 변화 노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피상적 변화 노력에 그칠 뿐 군대 내부의 나쁜 전통들에 대한 근본적 변화 노력은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병영 문화를 흔탁하게 만드는 갖가지 부조리와 악습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먼저 대한민국 군대의 존재 목적과 정예화의 실질적인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국방을 위해, 주적인 북한과 잠재적 적성국 중국 등에 대한 전쟁역지력을 갖추기 위해' 등의 거시적·피상적 목적 말고, 실제로 군대에 징집되고 군대의 본체를 유

지해야 할 대한민국 청년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군대에 인생을 내맡긴 군 간부들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군대의 존재 의미와 정예화, 그리고 병영문화 개선 의미를 되짚어봐야 유의미한 변화를 위한 상황 인식이 가능해질 것이다.

군대 내 부조리, 가혹행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군대 범죄와 군무이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밀한 인식이 어려운 이유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 군대란 대부분의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는 그들의 실제 삶과 전혀 상관없는 환상의 공간에 불과하고, 군 생활을 직접 겪은 남성들에게는 괴롭거나 지루한 감정으로 접철된 인생의 암흑기 정도로 간주된다.

군은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끊임없이 악동해야 하는 집단이지만, 막상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가능한 한 삶에서 멀리하고 싶고 꺼려지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군대의 존재 이유와 정예화의 필요성이라는 엄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하다 못해 부정적 감정과 결부되는 현 상황은 군대 내 인권 현실을 제고하고 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드라마 'D.P.'에 묘사된 것처럼 대한민국 군대에서 내부 부조리와 이에 대한 불투명한 대응이 개선되지 않고 그저 반복되기만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제 2 차
성경쉽게읽기 특강

성경쉽게 읽기선교회에서 **성경 일천번이상 통독**하신 데이비드 리목사가 첫 특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제2차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읽기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9월 9일, 16일, 23일, 30일, 매주(토) 오전 11시(4주간)
- **장 소:** Kairos University Campus (얼바인 본교 2층)
2681 Walnut Ave. Tustin, CA 92780
- **등록인원:** 30명 선착순(인원이 차면 다음 기회에)
- **등록비:** \$50 (교재 및 Fellowship), (수료하신 분은 무료청강)
- **등록방법:** 949-304-8912 이메일: bible100plus@gmail.com
- **강 사:** 데이비드 리 목사
- **주 최:** 성경쉽게읽기선교회 (본 선교회는 성경읽기에 관하여만 가르칩니다)

청빙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라는 사명으로 1993년에 창립되어서 30주년을 맞이하는 메릴랜드 빌립보교회(초교파)에서 유/초등부(K-5학년)를 담당하실 **사역자를(Full time) 청빙**합니다.

- 1. 사역 범위**
 - 150 여명에 이르는 K부터 5학년까지의 유/초등부 예배 인도 및 설교(영어)
 - 주일학교 교사 교육 및 훈련
 - 주일학교 행사 및 activity 인도
- 2. 지원 자격**
 - 1) 1년 혹은 그 이상의 유/초등부 사역 경험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혹은 아동교육 관련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 3.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자기소개 및 신앙간증문 (소명, 목회비전, 사역경력 등 포함)
 - 3) 추천서 2부 (각 추천인 연락처 기재)
- 4. 접수 및 방법**
 - 1)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2) 문의 및 서류제출:
청빙 담당자: 박일웅 (diwpark@gmail.com)
- 5. 참조**
빌립보 교회 홈페이지 (www.churchofphilippi.org)

빌립보 교회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각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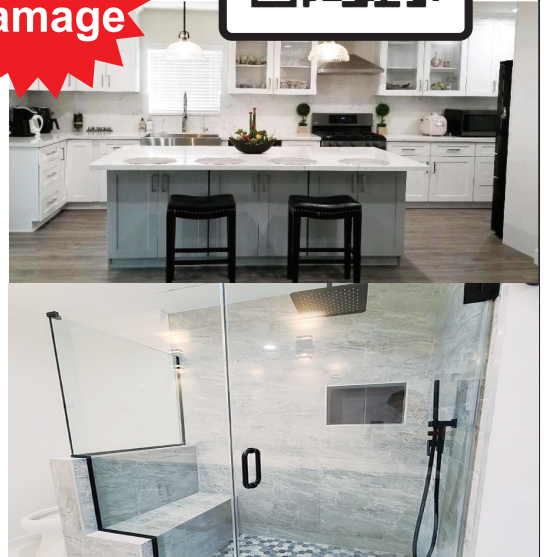
Water
Damage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